

활동보고서

재료공학부 예승비

1. 활동 내역

교류 기관 - 스위스 취리히 연방 공과 대학교 Eidgenössische Technische Hochschule Zürich, ETH Zürich

교류 기간 - 2017.02.20 ~ 2017.06.30

2. 지원동기

14년도에 스위스의 취리히대학교로 교환학생을 갔던 지인의 지속적인 추천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 소위 교환학생이라고 불리는 학업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주변 동기 및 선후배님들도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 권유를 많이 해주셔서 지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3. 입국 전 준비과정

입국 전 준비과정은 크게 비자 발급, ETH측 요구 서류 제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자 발급은 크게 어렵진 않지만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비자신청서를 비롯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관련한 행정 업무는 공과대학 국제교류 담당자님께서 도움을 주십니다. 물론 ETH측에서도 Visa guideline 파일을 제공하며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찬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대사관으로 가서 Visa authorization 서류를 제출하고 여권에 비자 도장을 받으면 되는데 스위스 대사관 위치가 이태원 근처에 있고 역에서 멀기도 하거니와 업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 가기가 꽤나 번거롭습니다.

두 번째는 ETH측에서 공식적으로 교환학생으로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Curriculum vitae나 Motivation letter를 비롯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교환학생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런 저런 서류를 보내고 나면 Letter of acceptance가 오게 되고 이로써 ETH측에서도 교환학생으로 선정되게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자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측에서 먼저 교환학생으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대략 8월 중순과 말 사이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ETH측 요구 서류(CV 등)를 제출하면 Letter of acceptance와 visa guideline을 보내줍니다. 그럼 학기 중에 visa application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대사관을 방문하면서 visa를 받고 ETH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차근차근 다시 제출하다 보면 (Study plan 등) 어느새 출국일자가 다가와있습니다.

4. 교류기간 동안의 생활

4.1. 학내 생활

출국 전 교환학생을 준비하실 때 열심히 수강과목 소개들을 찾아보며 Study plan을 작성하셨으리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도 그러하듯, ETH에 오셔도 Study plan대로 과목을 수강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수강 변경기간도 30일가까이 주어지고 변경자체도 몹시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수업을 들어보며 수강하실 과목을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수강과목의 경우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불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섞여 있는데 과목 소개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영어 과목을 신청하셔야 하고, 재료공학부의 경우에는 석사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어 전 석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ETH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의 대학교의 경우 석사 과정이 학사 과정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난이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기에 석사 과정 수업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TH의 과목들은 대부분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 하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말고사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End of semester exam이라고 하여 5월말~6월초에 종강하고 곧바로 기말고사를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ession exam이라고 하여 8월 중순~말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재료공학부 석사 수업들은 전부 End of semester exam이기도 하여 저는 석사수업을 들었습니다.

ETH는 크게 캠퍼스가 2개 있는데, 중앙역 근처에 위치한 ETH Zentrum이 있고 다소 외곽에 위치한 ETH Hönggerberg가 있습니다. 재료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학부의 수업은 주로 Hönggerberg, 기계공학부, 전기공학부의 수업은 Zentrum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캠퍼스가 더 좋고 나쁘다 하긴 힘들며 다만 본인의 기숙사에서 더 가까운 캠퍼스가 더 좋은 캠퍼스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캠퍼스든 교내 식당은 존재하며 학생증을 갖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 학생가로 식사를 판매합니다. 가격은 대략 6CHF ~ 10CHF이며 제 입맛에는 별로였습니다. 가격도 비싼데 별로인 음식 먹자니 내키지 않아서 전 항상 도시락을 만들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꽤나 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만들어 다닙니다.)

운동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생증만 있으면 좋은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ASVZ라는 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수많은 수업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싱, 배드민턴, 농구, 축구, 배구 등 굉장히 많은 코스들이 있습니다.)

4.2. 학외 생활

스위스에 도착하시면 설레는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준비해야 할 행정 절차가 꽤 있습니다. 크게 계좌 개설, 보험 가입, 교통권 구입이 있는데 계좌 개설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자랑 같은 학기에 교환학생을 온 친구들은 대부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한국 계좌(전원 하나은행 VIVA 카드)를 이용해서 교환학기를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지만 학기말에 UBS라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계좌가 필요해지기도 했고, UBS은행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해서 개설하였습니다. 보험 가입은 ETH와 UZH에서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자세히 설명해주니 해당 절차를 따라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가입하는 해외 체류 장기보험의 경우 스위스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니 굳이 가입하지 않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권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저는 Halbtax카드와 Gleis7을 도착하자마자 구입했고, 매달 취리히 Zone 110 한달 이용권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Halbtax는 스위스 내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경우 기차요금을 50% 할인해주는 교통권입니다. Gleis7은 Halbtax를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후7시가 지나면 스위스 내의 모든 기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권입니다. 두 교통권은 합해서 약 37만원정도 했으며 만 25세이하만 구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교통권을 꽤나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특히 2~3주에 한번씩 스위스와 독일 국경 근처에 있는 독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곤 했는데 이때마다 Gleis7을 이용했습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되실 것이고, 결과도 한국에 있을 때 알게 됩니다. ETH의 경우는 기숙사 시스템이 독특해서 캠퍼스 내에 숙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취리히 도시 내에 이곳 저곳에 WOKO에 소속된 건물이 있습니다. WOKO에 소속된 건물 중 학생의 희망사항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하여 하나의 건물을 배정해줍니다. 운이 좋으면 학교에서 도보로 5~10분에 걸리는 숙소에 걸릴 수도 있고 운이 나쁘면 학교에서 트램, 버스를 타고 30분이 걸리는 거리의 숙소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자의 경우인데, 사실 크게 멀다고 느껴지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한국처럼 인산인해로 붐비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꽤나 예쁘고 대중교통의 시간표가 1분단위로 짜여있고 또한 매우 잘 지켜져서 이동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환학생이 Cäsar-ritz strasse 건물에 지내게 되는데 ETH Zentrum에서 30분, ETH Hönggerberg에서 20분정도 거리에 있으며 저도 해당 건물에서 지냈습니다. 건물이 신축이고 굉장히 큰 편이기에 청결하며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구성원의 대부분이 교환학생이어서 파티도 자주 열리고 플랫친구들도 대부분 스위스에서의 생

활에 낯선 경우가 많아서 서로 친해지기 쉬워 여러모로 즐거운 숙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마치며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것 저것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서 귀찮은 마음에 '내가 왜 교환학생을 지원했을까'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지내는 동안에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너무 좋았던 기억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적의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생각도 한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진로고민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공과대학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